

이완께서는 충무공의 맏형 충신공의 네째 아들로 1579년 4월 11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보다 무예를 좋아 하셔서 공부가 끝나자마자 활을 들고 뛰어 가곤 하는 그였다. 그것을 목격한 아버지께서는 꾸중도 많이 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공부는 아니하고 무예를 더 중시하느냐? 앞으로는 네 방에서 한 발자욱도 옮기지 말고 근신하여라."하고 엄명을 내리신 적도 있었다. 이완은 아버님의 화가 풀린 다음에 "아버님 죄송합니다. 학문에 뛰어나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문무를 겸비한 사람은 더욱 필요합니다. 더우기 우리 조선에는 더욱요."

이 말을 들은 충신은 아들의 사려 깊음에 감탄하셨다.

그 분의 나이 10세 되던 어느날 아침부터 완이 안보여 그 분의 아버지 충신공은 대단히 노하여 엄히 다스리려고 회초리를 한다발 준비해 놓고 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 질 무렵의 되어서도 완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화가난 충신을 종을 시켜 완을 찾아 오게 하였다. 그 종이 완을 찾으러 동네를 돌아 다니는데 옷매무새가 추해 보이는 조그마한 아이가 달려와 완이 지금 어떤 아이들과 싸움을 한다고 알려 줬다. 달려가보니 완은 서너 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옷은 흙투성이가 되고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을 본 종이 말리려 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끝까지 싸워 이긴 완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님의 꾸중이 대단하였다.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온 완은 자초지종을 말하였다. 그건 이러했다. 밖에 잠깐 놀러 나갔는데 어느 조그마한 아이를 돌려 싸고 서너 명의 아이들이 그 아이를 놀리고 있었다 한다.

"거지! 거지!"

"밥 빌어 먹는 거지야!"

가만히 들으니 그 아이는 부모없고 나이 어려 이집 저집 밥을 얻으려 다니는데 아이들이 그 뒤를 따라 다니며 놀리고 있는 중이었다. 하니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완으로선 도저히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 아이들에게 달려 들었다 한다. 아무리 무예를 잘하는 완이라지만 서너 명을 상대하기란 힘이 겨웠으나 완은 끝까지 온 힘을 다해 그 아이들을 혼내 주었던 것이었다. 이말을 들은 충신은 장차 완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듯 완은 어려서부터 정의로왔던 것이다. 물론 학문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의 그의 나이는 겨우 14세였으며 두번째 난인 정유재란에는 19세의 나이로 숙부인 충무공의 아래에서 활동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완은 충무공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았다. 1598년 노량해전에서 최후까지 충무공 곁에서 싸웠으며 그 공은 실로 컸다.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해에 무과에 급제하고 그 후 1624년 인조 2년 나이 46세때 충청병사로부터 의주부윤으로 옮겨 갔으나 정묘호란으로 전세가 불리 해졌다. 그의 포도대장 시절에는 두뇌가 뛰어나게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귀신처럼 해결지어서 더욱 이름을 떨쳤다.

또한 이완은 그 인물을 보는 눈이 높았다. 그때는 효종 임금이 병자호란의 모욕을 씻고자 북벌을 계획하는 중이라 나라엔 청나라의 첩자가 많았다. 이완은 효종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나라안의 인재를 찾아 내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런 어느날 이완이 성묘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막거리에서 색다르게 보이는 총각 한사람을 발견했다.

이완은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다. 총각은 굽힘없이 당당한 태도였다.

'여느 사람 같으면 허리를 굽신굽신 할 텐데' 이완은 이렇게 생각하며

"임금께서 나라를 위하여 널리 인재를 구하시는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이 기회에 한번 대장부답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생각은 없는고?" 물으니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의당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한 나뭇꾼으로 늙으신 모친을 봉양하는 중이라서 저의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완은 이대로 돌려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냥 보내기에는 왠지 아까운 인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총각의 모친께 가서 직접 청하니, "나라를 위하여 쓸모가 있다면 사사로운 모자의 정에만 매일 수는 없는 일이죠."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효종임금의 뜻을 받들고 준비중인 북벌계획도 잘 진행되어 가는데 임금께서 승하하신 것이다. 이소식을 들은 총각은 이완을

찾아와 "이제는 고향에 돌아 가겠습니다." 하자 이완은 깜짝놀라 그를 말리려 하였으나 끝내 그 뜻을 꺾지 못하고 말하였다. "내가 자네의 그 극진한 효성에 감탄했네. 가게나. 한분 뿐인 모친을 잘 봉양하게." 총각은 "나라를 위해 제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심에 응할 결심입니다."하곤 길을 떠났다. 그 이후 그 총각의 소식은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정의롭고, 백성을 다스리되 사랑과 자비로 행하신 이완은 훗날 강민공이란 시호까지 하사 받으셨다. 강민공이란 그 분의 시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분은 평소 정의롭고, 사랑으로 백성을 대하신 분이셨다.

"정의 사회 구현"이란 선행 과제를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은 지금도 중요한 음성으로 무언가를 일깨워 주신다.